

강건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하자

생태계는 늘 살아 움직인다. 동시에 일정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種간 치열한 갈등과 견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견제는 생태계를 구성하는 種을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과정이며, 생태계를 더욱 강건하게 유지시킨다.

자연 생태계의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경쟁하고 견제하면서도 상호의존적이다. 놀라울 정도의 균형을 이루면서 생태계는 진화한다. 나무의 배설물인 산소가 인간에게 들숨이 되고, 인간의 배설물과 날숨은 나무에게 열매를 맺는 영양분이 된다. 생태계에서 적응하지 못한 種은 떠나고, 적응하는 種은 남는다.



지난달 e-Biz 클럽 토론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4,000여개사 중 수익을 내는 곳은 50여개사 미만이고 그동안 활발히 활동해온 e마켓도 10여개사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간 정부는 업종별 e비즈니스 구축 사업, 1만개 중소기업 정보화 사업 등 중소기업에 집중된 각종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현재 중소기업의 내부 전사적 지원 관리 시스템의 도입, 운영 현황은 매우 실망스럽다.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e비즈니스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급자 중심 혹은 정부 주도형 정책이었기 때문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기업 스스로 생존을 위해 움직이는 패러다임이 부족했다는 얘기도.

이미 수년전부터 자연 생태계와 디지털 기업 환경을 접목하려는 연구가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디지털 기술 수용 단계를 이메일·웹 사이트·전자상거래·e비즈니스·네트워크 조직·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 등 여섯 단계로 설명하고 있다. 기업의 디지털 기술 수용 단계 중 가장 발달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는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유지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 공유지는 사용하면 할수록 그 가치가 증가된다. 누구의 통제를 받지도 않고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디지털 시스템의 세계가 자연 생태계와 같이 상호 의존적, 자기 증식 혹은 최적화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고려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하다. 자연 생태계와 같이 스스로 균형을 이루며 진화시키기 위해서는 초기 조건이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는 기업이 선택의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또한 밥은 동쪽의 돈 많은 부잣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의 마음씨 좋은 사람 집에서 잘 수 있도록 합종연횡이 자유로운 '동가식서가숙'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이다.

기업은 이제 내부 역량만으로 생존할 수 없는 시대를 맞고 있다. 하나의 비즈니스 생태계에 소속되어 있지 못하면 다른 비즈니스 생태계와 경쟁할 수 없다. 기업 단독으로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다. 자신이 속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다른 생태계와 경쟁함에 따라 자신의 생태계와 운명을 같이하는 공생 공멸의 시대이다.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이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첫술을 떴을 뿐이다. 현재의 인터넷은 브로셔·우편·쇼핑·결제와 같은 오프라인 시대의 핵심 비즈니스 기능을 사이버 공간에서 흉내 낸 것에 불과하다. 인터넷이라는 전자 공유지에 기업들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강건한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가 국내에도 조속히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편집장 이창한